



반산스님의

### 경전읽기

#### 화엄경 ㉔

제6은 현전지(現前地)이다. "12연기에 인주하는 지혜(후득지)가 분별이 없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이끌어 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7 원행지(遠行地)에서는, "집착이 없이 머무는 작용의 최후에 이르러서 세간과 이승의 도를 벗어난다"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제6 현전지에서는 12연기에 대한 뛰어난 관찰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삼세양중인과(三世兩重因果)를 뛰어넘는 삼세일중(三世一重) 또는 이세일중(二世一重) 등 다양한 연기관이 시도되어 10종류를 나열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 중 일심소섭론(一心所攝論)에 해당하는 경론을 잠시 보자.

"불자여, 이 보살마하살이 또

매의 지혜를 얻고는 큰 방편으로써, 비록 생사를 나타내지마는 항상 열반에 머물며, 권속들이 둘러 앉았지마는 항상 멀리 여의기를 좋아하며, 원력으로써 삼계(三界)에 태어나지마는 세상 법에 물들지 아니하며, 항상 적멸하지마는 방편의 힘으로 도로 치성하며, 비록 불사르지마는 타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지마는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위에 들어가며, 부처님 경계의 장을 얻지마는 일부러 마군의 경계에 머물며, 마군의 도를 초월하였지마는 지금에 마군의 법을 행하며, 외도의 행과 같이 하지마는 부처님의 법을 버리지 아니하며, 일부러 모든 세간을 따르지마는 출세간법을 항상 행하며(佛子此菩薩得如是三昧智力以大方便 難示現生死而恒住涅槃 雖眷屬圍 而常樂遠離 難以願力 三界受生 而不爲世法所染)..."

### 삼계는 오직 한마음 뿐이다

#### 번뇌 물들지 않는 화광동진이 보살정신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삼계(三界)에 있는 것이 오직 한 마음 뿐인데(三界所有 唯是一心), 여래가 이것을 분별하여 열 두 가지(有支)라 말하였으니, 다 한 마음을 의지하여 이렇게 세운 것(依一心 如是而立)이다. 일을 따라서 생기는 탐욕이 마음과 함께 나니, 마음은 식(識)이요, 일은 행(行)이라. 행에 미혹함이 무명이며, 무명과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 나는 것이 이들과 물질(習)이요, 이들과 물질이 증장한 것이 육처(六處)요, 육처의 셋이 합한 것이 촉이요, 촉과 함께 나는 것이 받아들임이요, 받아들임이 만족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으로 거두어 버리지 아니함을 취함(取)이요, 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이 유(有)요, 유가 일으킨 것이 나는 것이요, 나서 성속함이 늙음이요, 늙어서 무너짐을 죽음이라 하도다."

이처럼 십지법문이 제7 원행지에서는 방편지혜를 잘 뒤아 37가지 보리분법을 만족하게 된다.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경론을 잠시 보자.

"불자여, 이 보살이 이러한 삼

위 경론에서 보듯이 세상에 함께 살면서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며, 원력으로 세상에 태어나지만 항상 적멸한 열반의 도를 여의지 않는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원력수생(願力受生)을 실천하는 대승보살의 정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 포교에 나선 법사들은 꼭 이 부분을 애독해야 하리라. 원행지(遠行地) 보살의 큰 원력과 방편의 힘이 있고서야 비로소 세상의 동물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중생의 욕구에 따른 방편법을 베풀 수 있을 것이니 말이다.

이렇게 십지 수행이 무르익는 즈음에, 서울의 한 곳에서는 그동안 동국역경원이 주도해 온 한글대장경 역경본사가 회향되어 그 기념법회를 열고 있으리라. 참으로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 아니겠는가! 오랜만에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대지는 온통 6층으로 진동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글대장경을 읽는 불자들은 모두 성문을 잠시 보자.

■불자여, 이 보살이 이러한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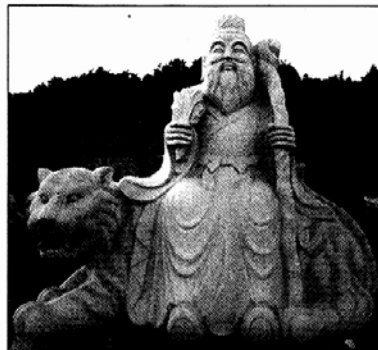
■불자여, 이 보살이 이러한 삼

###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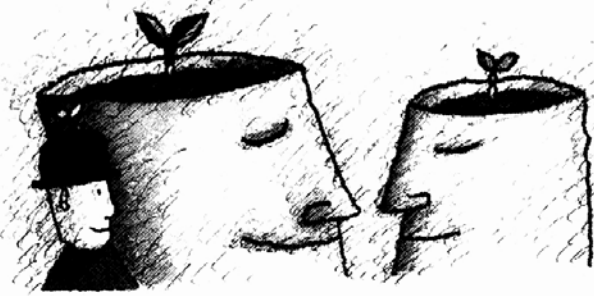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전화: 011-284-5101



그림·문병성

### 진리 보려면 전체를 보라

#### 불교와 과학 <42>

19세기 말경, 생물학 분야에서 형태발생학적인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형태발생학은 진화론의 한 가지이지만 진화론적 사유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현대 분자유전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형태발생학이란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 안에 자신의 형태를 기억하는 유전적 인자가 들어 있어 그로부터 생식세포를 통한 형태발생과 동일한 형태발생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생물학에서 형태발생학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주 드는 사례는 도마뱀의 잘린 꼬리의 경우이다. 잘린 꼬리는 다시 스스로 같은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재생된다. 그것은 잘려 나간 꼬리 연결부위가 꼬리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복원 기능이 체세포 안에 자체적으로 있다는

#### 형태인식과 인연

이후 이러한 사유방식은 경험주의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것을 우리는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이라고 부른다. 형태심리학은 인간의 인지구조가 언어의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인지과정 말고도 종합적이고 심상적(心象的)인 형태를 통해서 인지되는 과정을 특히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깔리리에 걸린 한 폭의 그림을 볼 때, 추론적 인지보다는 형태적 인지가 먼저, 그것도 저절로 작동한다.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림의 화폭을 잘게 나누어서 인지한 다음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전체 그림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전체를 하나의 형태로 인지하며 그것을 마음 속에 담아 하나의 심상으로 만들어 이해하게 된다. 이런 방식을 형태학적(Gestalt) 인지라고 말한다.

다른 예를 보자. 책을 자주 접한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한 폭의 그림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듯이 문장 혹은 문단 전체를 한꺼번에 인지하고 이해한다. 생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분석적 인지를 주로 담당하는 좌측 두뇌와 종합적 인지를 주로 담당하는 우측 두뇌를 골고루 쓰기를 연습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은 먼저 사물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사물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서구 근대 인식론은 이 문제를 갖고 300년이나 논쟁을 벌여 왔다. 흄과 같은 경험론자는 사물

의 경험적 지식에 중점을 두었고,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론자는 인간의 마음에서 인식의 출발을 두었다. 그 후 칸트는 감각을 뿜어내는 지각경험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틀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칸트의 인식론은 흄의 경험론과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종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칸트의 인식론과 유사한 형태심리학은 한번 인식된 과정을 다음 번에 그 과정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기억하는 마음의 틀을 중시한다. 기존에 기억된 사물 지각을 연상하는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사물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독자들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유식론의 아라야식을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것 같다.

불교의 유식론을 서구철학이나 과학의 장르와 직접 비교하는 일처럼 무순은 일도 없지만,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쪽 사유의 큰 틀을 대비하는 일은 흥미로울 수 있다. 서구 심리학과 달리 유식론은 궁극적으로는 원래 지녔지만 지금은 잃어진, 그런 흔들림 없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의 광명함 지혜를 되찾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유식론은 단순히 심리학과 비교될 수 없는 도솔천의 길을 찾는 일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유식론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헛된 감각지초차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이라서, 감각지의 다양한 현상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일 역시 중요하다.

유식론 중에서 아라야식은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이라고도 한다. 종자가 썩어 나뉘면 건실한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영양분 있는 흙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업에 의해서 썩어 나가는 결과가 형성된다. 철저한 인과론이지만, 그 인과 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인과의 원인에 해당하는 인연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종자를 인이라고 한다면 흙은 연으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인과 연이 하나의 마음 속에 융용되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이런 마음의 실천은 각(覺)을 이루기 위한 사전 준비가 되기도 한다. 인이 연을 기억하듯, 연이 인 속에 녹아서 몸과 마음으로 체득된 상태를 기다리는 마음은 결코 심리학의 분절된 인식 과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보는 형태적 인과관계를 찾는 일은 진리에 가깝게 다가가는 여정에 조금은 비유될 수 있다.

■최희종/상지대 교수 jchok@chak.sangji.ac.kr

### "모두 내형제" 일깨워 사랑과 평화 심어

#### 지구촌 불교 / 美 교도소 교화프로그램

미국 플로리다 주정부가 힐스보로프(Hillsborough) 등 7개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심을 기초로(Faith-based)'라는 종교교화 프로그램이 화제다.

AP 통신은 8월 24일 '플로리다 교도소들, 신심삼매(信心三昧)에 빠지다(Florida Prisons Turning to Religion)'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플로리다 주 교도소 관리위원회가 종교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시한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플로리다 주 정부의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신심을 기초로'라는 종교교화 프로그램은, 플로리다 대학교 사회연구소가 97년 텍사스에서 개최된 사회학 세미나에서 처음 발표된 것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재소자 스스로 내면에 있는 공격적인 성향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수행법을 토대로 개발한 교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정기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고, 교리 공부를 통해 참회하고, 각 종교 인사 혹은 도



◇미연방 교도소 그린 해븐(Green Haven)의 재소자들이 법회를 통해 하는 모습

### 플로리다대서 불교 등 수행법 활용 개발 재범률 '뚝' ... 2년만에 7개 교도소 확대

반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구성됐다.

이 교화 프로그램은 99년 플로리다 주지사 J.부시에 의해 데이토나 비치(Daytona Beach) 교도소에 처음 채택됐다. 이후 플로리다 주 정부는 2년간 450만 달러(약 6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힐스보로프와 로우(Lowal) 등 7개 교도소로 확대, 실시했다. 여기에 4백여 재소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힐스보로프 교도소를 방문한 교도소위원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재소자들의 면담 등을 통해 효과를 실감했다.

이 곳에 수감된 크루즈(Cruz) 20 불교는 "예불의식에 참여 과정에서 평온을 찾고, 함께 법행을 저질렀던 과거의 사람들은 모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흉악한 살인행부업자였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찾은 것이다.

라미레스(A.Ramirez) 20 · 기독교 역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두가 내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강도와 장물거머로 올랜도(Orlando) 교도소에서 5년 동안 복역해 오다, 지난해 종교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는 그는 "마약도 끊게 됐다"고 덧붙였다.

힐스보로프 교도소의 종교교화 프로그램에는 불교를 믿는 크루즈 외에도 32명의 재소자들이 참여해 기독교, 이슬람교 등 자신의 종교 전통에 따라 의식을 집전하고 교리를 공부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soo@buddhapa.com

###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김준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성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운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 상담 : 02)447-9114

-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 延年 不老 仙藥也(연년·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